

과학·환경 독후감 쓰기



1882

계성초등학교

5학년 진반 이름

읽은 도서명 : 뇌과학과 인공지능

이세돌과

[제목] : 인공지능이 과연 언제 인간을 뛰어넘을까?

알파고와 이세돌 이야기, 어디서 많이 들어 보았다. 알파고와 이세돌을 4:1로 이긴 뒤부터 사람들의 생각은 변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몇십년 뒤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 질거라고 말했다. 그 말을 듣고 난 뒤, 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겼다.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, '뇌과학과 인공지능'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.

이 책에는 DNA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다. DNA는 유전정보가 들어있는 기다란 사슬이다. 바로 이 DNA를 복제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. 사람들이 흔히 '엄마 닮았네, 아빠 닮았네' 하는 것도 바로 이 DNA 때문인 것이다. 하지만 DNA는 스스로 복제를 하지는 못해서, 다른 효소가 필요한데, 그것이 바로 단백질인 것이다. 특히 우리같이 성장을 하는 아이들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단백질이 에너지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.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세포속 화학공장에서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다. 단백질이 만들어 지는데에는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이게 빠른걸까? 그렇다고 볼수는 없다. 만약 신호등을 건너려는데 차가 막 오면 빨리 달리든지 멈추든지 해야하는데 2분이나 걸리면 아마 우리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.

그래서 우리에게도 뇌가 있는 것이다.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. 과연 단백질이 우리의 키도 크게 할까? 나중에 꼭 알아봐야겠다.

다음으로는,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있다. 어제, 사람들은 대부분 알파고의 승리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. 하지만 인간이 완패한 건 아닌 것 같다. 한 판이라도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세돌이 한 판이라도 이긴 건 대단한 것 같다. 요즘에는 그림을 그리는 로봇, 외국어를 번역해 주는 로봇, 바둑을 두는 로봇 등 많은 로봇이 생겨나고 있다. 나도 작년에 크로아티아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서 쇼핑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. 비행기를 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도중, 뒤에서 로봇이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했다. 나는 계엄령을 원했다. 그리고 로봇이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. 만약 이 로봇이 없었더라면 가족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.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. 또한, 내가 가장 신기했던 중국의 슈퍼컴퓨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라고 한다. 인공지능은 정말 놀랍기도 하고, 신기하기도 한 것 같다.

마지막으로,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우주로 간 인공지능에 대해서이다. 단백질이 만들어 지는데 시간이 2분이나 걸리는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. 옛날에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는데 화성을 탐사하는데 실패를 했다. 오해일까? 바로 지구와 그 로봇이 신호를 주고받는 데에는 12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. 만약 그 로봇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오면 그것은 12분 뒤 일 것이고 위험하다고 다시 신호를 보내면 그건 24분 뒤 일 테니까 어차피 떨어지

과학·환경 독후감 쓰기

학년 중3 반 이름 : 계성초등학교
읽은 도서명 : 뇌과학과 인공지능



[제목] :

부서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. 이 실패를 뒤로 다룬 화성 탐사 로봇, 쌍둥이 로봇 쏘아 올린 정공을 했다. 인공지능은 어떻게 우리가 화성에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다. 인공지능 참 할 수 있는게 많은 것 같다.

이 책에서는 몇십년 뒤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는 것에 대해 좀 반대하고 있다.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대리인 같은 존재인데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서 인간의 힘 없이 스스로 복제해 내기 전까지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. 인공지능은 실생활에도 많이 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 좋다. 앞으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을 좋은 것으로 잘 써 나가야 할 것 같다.